

<투쟁사>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라!

나승철(청년변호사협회 회장)

그동안 법무부와 로스쿨 대학들은 마치 로스쿨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을 해왔고,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을 실패한 제도로 규정짓는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시행된 제도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자포자기 심정 때문입니다.

현재 로스쿨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스쿨 제도는 별거벗은 임금님이고 별거벗은 임금님의 재단사가 바로 법무부와 로스쿨 대학입니다. 그럼 왜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느냐? 로스쿨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여부를 따져보려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아닌 법조 기득권 타파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변호사 숫자 얘기 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라고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로스쿨 변호사 취업난과 관련해서 정중섭 전 이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출신 누구든 부당하게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 안 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그 이후의 일은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미 변호사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법전문가일 뿐이다. 시장에서 전문가는 각자 자기 능력만큼 대우를 받게 된다. 이제는 변호사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능력 없는 변호사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11년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는 2011년 11월 16일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정종섭 이사장님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시냐면 ‘정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고용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을 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이 성명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두달 전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종섭 이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달 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로스쿨졸업생 취업 등과 관련한 TF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로스쿨이 국무총리실에 TF팀 설치를 요청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를 안 하시고 로스쿨로 가시는 경향이 있고 그게 전 관예우를 포기한 미담으로 소개됩니다. 심지어 이용훈 대법원장님까지 고대 로스쿨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부나 사법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생각을 하면 저는 머리가 아득해집니다.

결국 이쯤 되면 과연 국민을 위한 로스쿨인지 아니면 로스쿨을 위한 국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책은 로스쿨을 위해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소득 계층에 따라 로스쿨 진입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사가 나왔고 로스쿨 입학 자체도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입학 전형의 불투명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강남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PC방 아르바이트가 소위 말하는 스펙, 다양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서민층이 로스쿨에 진입할 방법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럼 로스쿨이 완전히 무용한 제도냐? 제가 볼 땐 상당히 그대로 장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사법시험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진입을 했고 로스쿨 변호사의 배출로 인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서 경쟁이 치열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은 로스쿨만의 장점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로스쿨의 단점은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진 자는 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그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폴리처 상을 수상한 테니얼 골든이라는 기자가 미국 명문대학 입시에서 특권층에 대한 특혜문제를 다룬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명문대 입시에서 특권층에 대한 특혜는 부잣집 지원자들의 입학자격을 가진 중간층이나 서민층 지원자들을 제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로 인해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 입학 지원에 많은 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다. 인재를 배제하고 특권층의 무능한 자녀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정치적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권층의 배제를 '미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 제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저해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일단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도 1년에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0명 정도씩만이라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로스쿨로 진학할 것이고, 사법시험의 경쟁률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로스쿨 측은 기어코 사법시험을 없애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2017년까지 500명만 뽑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시험법을 의결하면서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법무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

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요청이자,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냅시다.